

2월 2주 가정예배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천국은 마치 / 찬송가 531장

본문말씀 || 요한복음 5:6-9

6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7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8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시니,

9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 가지고 걸어갔다.

베테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연못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신비한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38년된 병자가 있었는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 혼자인 병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 물음에 가장 올바른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희망을 잃고 혼자라는 생각에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 보다,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타성에 젖어 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네 병이 나았다” 라고 하시지 않고.. 아직 누워있는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타성에 젖어 희망을 놓고 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는 말씀을 기억하며 실패해도 용기와 희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생각 Ⅱ

(영아/유치)

38년 병자를 치료해주신 분은 ○○○ 이세요.

(유년/초등)

38년 병자는 ○○○○ 연못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았어요.

(중고등/청장년)

1. 38년 된 병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2. 우리는 실패했을 때 용기와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함께 드리는 기도 Ⅱ

사랑의 주님!

우리 가족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된 병자는 실패와 낙심에 빠져 변화를 포기한 채 혼자라는 마음으로, 고칠 수 없다는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을 잃은 채, 발걸음 옮기기를 두려워하며 타성에 젖어 있을때가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주님이 함께함을 기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축복 기도 Ⅱ

(개인 감사 기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부부 축복 기도)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예수를 힘입어 희망을 전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부모, 자녀 축복 기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자녀) ○○○가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Ⅱ